

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| 2025.4.29.(화) 14:00 | 배포 | 2025.4.29.(화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 | 책임자 | 국 장 | 김옥배 | (02-3145-570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김현정 | (02-3145-5685) |
| |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| 책임자 | 국 장 | 박시문 | (02-3145-6700) |
| | | 담당자 | 수 석 | 김민형 | (02-3145-6703) |
| |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| 책임자 | 국 장 | 김형원 | (02-3145-802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송명준 | (02-3145-8030) |
| |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| 책임자 | 국 장 | 임권순 | (02-3145-7580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김세훈 | (02-3145-7587) |

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

1. 추진배경

- 지난 '21.3월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시행과 함께 금융상품 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명의무 합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·배포('21.7월)하였으나,
- 금융회사가 판매 스크립트 낭독 등 경직적 설명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상품 설명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,
- 소비자는 정보 과잉으로 인하여 상품 가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

펀드 가입 관련 소요시간 및 국민인식

- **(미스터리쇼핑* 결과)** '24년중 11개 은행 및 13개 증권사의 펀드 가입 관련 평균 상담시간은 약 56.5분 수준으로 장시간 소요

* 출처 :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「2024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」

- **(국민인식 조사*)** 설문 결과('23년중), 전체 응답자의 약 57.0%가 펀드 가입시 상품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

* 「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」

(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조사 의뢰)

※ 적정 상담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28.6%가 10~20분, 37.0%가 20~30분으로 답변

□ 특히, 공모펀드의 경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·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 형성·확대 수단인 만큼,

- 소비자 이해도 제고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상품 설명 과정에 비효율적 요소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

※ 최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('25.4.10) 당시 일부 CEO는 공모펀드 활성화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공모펀드 가입 절차를 합리화가 필요함을 언급

※ 감독당국은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설명서 개선을 추진중*이며,

* 홍콩 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('25.2월 금융위·금감원 공동발표)

- 금번 TF는 고난도 상품이 아닌 저위험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진행

2. TF 개최 및 운영

□ (개요) '25.4.29.(화), 금감원은 금소처장 주재로 은행, 증권사, 자산운용사 및 협회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논의

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Kick-Off 회의 개요

- 일 시 : '25.4.29.(화) 14:00 ~ 15:00
- 장 소 :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
- 참석자 : (금감원) 김미영 금소처장(주재), 박지선 부원장보,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
(업 권) 4개 은행, 4개 증권사, 3개 자산운용사 및 은행연합회·금투협회 임원
*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 / 미래에셋·한국투자·NH·삼성증권 / 신영·흥국·IM에셋자산운용

□ (추진과제) 실제 펀드 가입 현장에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 합리화 방안을 마련

- 금융회사가 설명의 정도(Depth)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,
- 상품설명서의 내용·형식을 상품에 가입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재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

□ **(실무회의)** 금소처장 주재 키포프 회의 후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

- **(구성)**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(반장), 은행감독국·자본시장감독국·자산운용감독국 실무자, 은행·증권사·협회별 실무자 등
- **(일정)** 4~6월중 실무 논의, 합리화 방안 마련 → 3분기중 후속조치 이행
- **(운영)** ①금감원 발제 → ②업권 논의 및 개선방안 구체화 → ③개정(안) 마련 방식의 順으로 진행

3. 금소처장 및 참석자 발언 요지

□ **(금소처장)** 미스터리 쇼핑 및 국민인식 조사 통해 긴 가입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펀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,

- 금번 상품설명 합리화 TF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
- TF 참여자들은 실제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요청

□ **(참석자)** 상품설명 합리화가 소비자의 펀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 제도개선임을 인식하고 있음

- 이번 TF에서 상품설명 절차를 되짚어 보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유익한 논의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며,
- 소비자들이 펀드의 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음